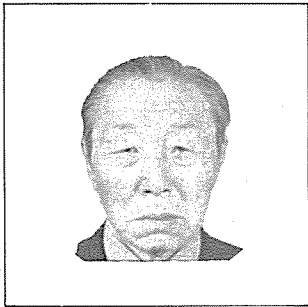


UR에 대한 농·축산분야의
문제점과 기술적 대응

“**획기적 政策**
지원과 自求노력
절실”



李 用 斌

元老과학기술자문단 축산분과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우루과이 라운드(UR)가 한국농업축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분야보다 대단히 커서 국가 존망에 관한 문제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농축산업은 단순한 식량을 생산하여 도시나 기타지역에 공급함은 물론이지만 그밖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고 농토내지 자연을 개발 보존하는 국토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농업은 국토 내지 국가의 기반이 되며, 농촌이나 농업이 없는 도시국가등은 독립국가로서 생각 할 수 없을 것이다.

단순히 비교우위 경제론만 가지고 농업이나 축산업을 본다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 하

겠다. 특히 농업 강대국들이 UR협의로 우리나라 농축산업과 농축산물 개방을 강요한다면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파괴되어 농축산업은 전멸상태에 이르러 다른분야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이 명확한 사실이다.

농업전반의 취약점

특히 우리나라 농업은 기본적으로 심한 취약점을 가진 근근대적인 분야가 많다. 즉 ① 농업의 영세성(토지면적, 자본능률등이 미국등 농업강대국의 1/50~1/100이다) ② 농가부채(현재 7조억원이고 농가당 340만원인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③ 기술과 협동조직의 후진성(1ha 내외의 농토로서는 농업기계화가 불가능하고 고급기술이 침투되지 못하여, 또 협동화는 민주적이 아닌 관료적 농축산업 협동조합이었음) ④ 노후화된 농지와 기후조건(강우량의 편중)의 분리(우리나라는 들산이 많고 육산이 적으며, 토양의 노후화로 객토 정도로서는 유기질이 많은 토양조성이 곤란하고 폭우로 표토의 유실 등) ⑤ 도농간의 격차(도시와 농촌의 문화 교육 경제 정치 등이 다른나라에 비하여 격차가 심하다) ⑥ 노동력의 노화와 노동력의 이동(즉 현재 60세 이상의 농민이 증가하고 20~40세의 중견인물은 도시나 기타 산업으로 이동)등이 모두 농업 취약점이다.

축산업의 취약점

축산업도 경작농업의 영향으로 소농의 부업적인 가축을 길러왔으므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였고, 산야지의 이용 불능에 겹쳐서 광활한 자연초지나 인위적으로 조성한 목초지의 부족으로 초식가축의 사육이 발전하지 못하였다. 아직까지 1~3두의 농경우를 기르다가 노패우의 고기를 이용함으로써 고기의 질과 양이 부족하여 값이 비싸다. 낙농은 해방후 영에서 부터 시작하여 젖소의 도입과 번식으로 현재 50만두로서 성공한 산업의 하나가 됐다. 그러나 地代의 상승과 방목지나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부족으로 한계에 이르렀다. 번식력이 강한 돼지와 닭은 완전한 외국 도입종이고 한개의 국내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나

막대한 외화를 소비, 외국에서 도입한 사료(주로 미국 옥수수가 98%, 콩이 85%)를 써서 상업적 축산(Commercial Livestock Production)을 하고 있으므로 UR문제 이전에 막대한 외화(총생산비의 25-30%)를 소비하며 생산—소비하고 있다.

축산정책의 취약점

정부의 경제기획원이나 농수산부에서는 남득 할수 없는 축산정책을 베풀고 있다.

예컨대, ① 마사회에서는 경마를 주사업으로 하는데 경마는 말 능력을 검정하여 능력이 좋은 종마를 개량하는 한방편으로 경마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주면서 도박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허용하는 기관이다. 현재는 마산업이 부진한 상태나 경마로 인한 수입의 상당부분은 축산개발에 돌려왔고 일부 사회복지(일본의 예)에 돌리기도 하는데, 소, 말, 돼지, 양, 닭등은 농수산부에서 경마사회를 관할하며 축산 발전에 중요한 도구로 써 왔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전 세계적으로 그 예를 볼수 없다. 체육에 필요한 말은 승마 구락부이면 족할 것이고 경마는 체육이 아니고 잘못하면 가축개량이라는 영역을 떠나서 도박으로 체육과 청소년을 육성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폐쇄함이 타당하다.

② 축산물 가공을 비롯한 모든 농축산물 가공의 감독 허가는 농수산부에 환원 시키고 보사부는 본연의 업무인 식품산업의 위생관리에 전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 미국등 선진국과 같이 농축산 가공의 관할은 농수산부에 되돌려야 할 것이다.

축산정책

계획

구미 각국에서는 농업이라 하면 가축을 통한 수입이 전체 농업 수입중에서 50% 이상(미국)이고 농업생산은 국가 총수입량의 50% 내외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축산의 비중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다.

여기에는 모든 과학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정부에서 토지 장기상환 용자 가격보상등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기반이 미약한데다 상공업에 치중하다 보니 농수산분야는 기하급수적으로 낙후되어 축산은 기반이 약하고 농업 주산국에 예측되어 버렸다. 즉 미국사료로 미국가축을 도입 사육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정부의 축산물과 가축사육수 전망은 <표-1>과 같다.

<표-1> 축산물과 가축 장기수급전망

		1981	1991	2001	연증가율	
					89-2001	2001/89
인당수요	육류	17.0	20.1	31.9	4.8%	1.8배
	계란	9.5	10.1	13.2	3.2	1.5
	우유	39.4	43.6	63.1	4.2	1.6
사육두수	소1급하	2,051	2,095	2,946	3.1%	1.4배
	돼지	4,801	6,040	9,014	5.4	1.4
	닭백만	61.7	66.3	99.1	4.0	1.6

또 이러한 환경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투용자(1991-2001년)는 <표-2>와 같으며 여기에 UR 파동이 겹치면 약 2조억원이라는 자원으로서는 도저히 지탱하지 못하고 수입 농축산물에 전적으로 예소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북방외교의 개방으로 중국등은 곡물사료를 한국에 출혈수출 하고 있고 더구나 남북통일 후 이북의 식량보급까지 감안한다면 UR협상과 함께 70-100배나 되는 미국, 호주, 남미, 캐나다등에 개방하면 우리나라 축산은 전멸할 것이다. 그나마 NTC(비교역농산물)의 수를 늘리고 10-20년간의 조절기간을 얻을 때 개혁을 하여 농축산 분야를 합리적으로 경영

<표-2> 연차별 투용자계획

	'90~2001		
	'90	'91~2001	계
국비 및 지방비	168	5,231	7,399
축진기금	1,174	6,126	7,300
농어촌발전기금	83	1,252	1,335
축협자금 기타	1,793	4,407	6,200
계	3,218	17,016	20,234

과 무역을 포함한 국내외 유통과정에 대혁신을 하도록 과감한 정부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그나마도 2000년대에 가서는 또 다른 압박이 가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여건 변화에 따르는 축산정책

① 농촌경제(1970~1980년대)를 보면 GNP중 농축수산업이 26%에서 10%로 감소 되고 순 농업소득도 76%에서 60%로 감소 되었으나 농업소득중 축산을 통한 수입은 56%에서 18%로 크게 향상했다.

② 국제적 여건의 변화

한국은 GNP의 급속한 향상으로 농축산업도 민주화 국제화로, 자연히 도시화 상업화로, 농축산업도 자급화에서 시장화→상업화로 급변하고 있으며 농업중에서도 축산은 제일 빠르게 상업화와 국제화가 된 셈이다.

더구나 GATT와 BOP의 졸업과 더불어 UR협상등이 개방화 시대에 제일 큰 문제로, 국토는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한국에서의 축산은 국가적 견지에서 볼때 난국에 빠지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국내외여건 변화에 따르는 대책을 다음과 같이 세우고 있으나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문제해결에 힘써야 하겠다.

- ① 축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정책
- ②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
- ③ 축산물 유통개선
- ④ 사료자원의 개발과 수급안정
- ⑤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
- ⑥ 축산공해방지 대책
- ⑦ 축산기술 지도와 축산단체의 기능강화 등이다.

이상과 같은 축산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7개항의 대응책을 세우고 있으나 여기에는 허다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우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볼때 농·축산 정책을 상술한 바와 같이 미흡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도농간의 격차가 심하여 상공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다.

축산업은 자체내에서도 사회적인 취약점을 가

지고 있다. 즉 도살, 가축배설물, 번식(성 관계)등이다. 도살은 피를 수반하게 되고 살생이라는 동양 유교, 불교사상으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다. 그러나 육류라는 고급상품을 생산하려면 피할수 없는 생산과정이고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피가 신성시 되고 있으나 구습을 타파하는데는 시간을 요한다. 가축의 배설물은 냄새로 인하여 사람들이 취급을 기피하고 있으나 농산물 재생산에는 특히 노후화된 토양에 절대 필요한 유기물 비료가 된다.

가축을 증식시키는데는 가축의 성 교배관계를 취급하다보니 상스럽다는 인식이 사회적인 분위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높이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근로의욕이 저하되어있는 현시기에 노동기피현상이 극심하고 고임금 분야에 속하므로 하루 속히 기계화 자동화로 경영을 능률화하여 합리적인 경영과 무역과 유통과정을 포함한 상거래의 개선방안이 절대 필요하다.

즉, 전근대적인 가축사양이나 경영판매방법으로서 UR압력에 대하여 지탱할수가 없을 것이다. 또 축산의 등뼈가 되는 종축의 유전능력을 향상시키는 종축개발에는 특별한 힘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고도로 발달된 가축영양과 사료자원의 적극적인 개발로 과학적이고도 기술적인 사양법을 더욱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 언급한 것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1. 종축 개량 | } 과학과 기술적. | } 축산업의
현대화 |
| 2. 사양의 개선 | | |
| 3. 파리의 개선 | | |
| 4. 경영의 개선 | } 경영의 합리화 | |
| 5. 유통의 개선 | | |

대응책(기술분야)

이러한 전근대적인 축산업을 현대화하지 않고는 UR협상도 안되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축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UR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술분야를 들어 보고자 한

다.

· 가축 인공수정의 현대화로 우량종축 이용범위의 확대 : 종모우 1두에서 인공수정의 암소에 주입할 수 있는 마리수는 1년에 1~3만두이므로 좀더 인공수정 조직과 종축개량협회가 조직화되어 우량종축의 보급에 힘써야 할것이다 왜지도 한국돼지인공수정센터와 같이 우량종 보급에 힘써야 할것이다.

· 축종별 협업화를 강화하여 인공수정과 경영, 판매를 포함한 전산화—정보화로 경영조직을 고도로 합리화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경남 양산군 상북면 석계리의 오경농장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의 전산화등인데, 부산시내 달걀값을 좌우하고 또 고가로 판매되며 UR에 대응할 수 있는 한 표본이 될것이다.

· 가축의 생체와 도체의 등급제를 실시, 강화하여 악덕상인을 배제하는 동시에 축산물 품질의 고급화로, 축산물생산은 물론, 경매제도를 도입하여 유통과정을 현대화 해야한다.

즉, 중간상인 배제등으로 유통과정의 개선, 수출입 업무의 전산화로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 방역과 가축의 위생적 처리를 강화하여 급성 전염병 예방은 물론이지만 만성적인 각종 질병에서 오는 경제적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방외교로 왕래가 빈번하면 중국, 소련등에서 무서운 병이 반입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가축별 방역계획과 질병예보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높다.

· 1989년도 가축용 농후사료 도입량은 7,692,376M/T 으로서 우리나라 농후사료 자급율은 26.2%에 불과함으로 자급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허용되는 산지개발과 임간방목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닭리작, 사료작물 재배로 양질의 조사료를 더 많이 개발하여 더욱 합리적인 사양관리를 통하여 UR의 협상에도 대응해야 한다.

· 유전공학 분야에 관한 번식공학을 이용함으로써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더구나 첨단

기술을 이용한 사료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이나 기타지방에서 가축 사료작물 유전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구 조사하여 도입해야 할것이다.

· 축산업은 가급적 省力化 해야 한다. 목초재배, 사료작물생산, 사료가공 배합등은 물론 축산물 가공분야에 이르기까지 대형화 기계화와 자동화를 하는 동시에 전산화를 적극 도입하여 UR협상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 금년(1990)에는 닭고기는 작년보다 23배, 양고기는 12배, 돼지고기는 1.32배나 수입이 증가되었다. 1956~1960년대 전쟁이라하여 미국의 계육이 유럽에 상류하여 유럽의 양계업을 강화하고 동시에 축산물(특히 육류)파동을 일으킨 역사를 회고할 때에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양고기 역시 염가이므로 개방되면 중국을 포함한 축산국에서 다량 수입될것이다.

· 우리나라에서 흔히 들리는 말로 3무, 3다, 1고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3무는 재배작목이 없고 일할수 있는 젊은이가 없고, 어련이가 없다는 것이다. 3단현상은 빈 집이 많고, 노약자가 많고, 부너자가 많아서 일할수 있는 청년은 도시나 상공분야로 가버려 노동력의 노화와 약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한가지 높은 것은 품작 등이므로 목부 기타 365일 먹여야 하는 즉, 휴가없는 축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 이러한 우리나라 3무—3다—1고 현상은 농촌문제 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국가적 견지에서 해결 하면서 UR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

· 농협 중앙회서의 추산 : UR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농업소득의 70%가 감소되어 7조원 규모의 농협 피해가 울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격도 30%나 하락하여 농가소득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농업생산의 포기에 따른 토지, 농기계, 수리시설등 농업자원의 유후화 규모가 35조원에 이르며 이로 인한 추가 이농인원이 1백만명에 달할것으로 추산 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국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상상 이상이라 하겠다.